

## 프랑스어의 대화 담화에 나타난 운율 연구\*

Prosodic characteristics of French language in conversational discourse

고 영 립\*\* · 윤 애 선\*\*\*  
Young-Lim Ko · Ae-Sun Yoon

### ABSTRACT

In this paper prosodic characteristics of French language are analysed with a corpus of radio interview. Intonation patterns are interpreted in terms of raising pattern, focal raising pattern and falling pattern. Accentual prominence is classified in two types, rhythmic accent and focal accent. Focal accent permit to explain the cohesion in a utterance or between two utterances. As a prosodic variable of discourse pauses are described by their form of realization (filled pause, silent pause, hesitation etc), their distribution and their function in utterance.

**Keywords :** French prosody, intonation patterns, accentual characteristics, pauses

### 1. 서 론

프랑스어 운율의 실현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종래 프랑스어 운율에 대한 연구는 낭독체 코퍼스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실험 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프랑스어 운율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들(Philippe Martin, Geneviève Caelen, Jacqueline Vaissière)과 억양소가 어떻게 문장 구성요소간의 정보 층위 기능을 담당하는지 설명하는 이론들(Jean Perrot, Mario Rossi)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 이론들은 자연스런 음성 합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문장 단위 중심의 낭독체 담화를 이용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에 응용하기 위한 중요한 음성 정보로 운율 패턴들이 음성학자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대 프랑스어의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억양, 리듬, 액센트 패턴들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제 상황에서 화자의 적절한 즉흥성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타나는 구어 담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과제번호 1998-001-A645)에 의해 지원 받은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화(일상적 대화, 대중 매체언어, 정치 연설 등)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운율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결과와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는 한편 종래 이론에서의 연구 대상인 문장 단위를 넘어서 운율의 담화 기능까지 포함하여 기술하면서 운율 고유의 표현 기능을 넓혀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 프랑스어가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화자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운율적 변이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낭독체 담화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휴지 현상들이 구어 담화를 분석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이 현상과 다른 운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새롭게 고찰되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 2. 연구 목표

단순 청취에 의하더라도 대화 상황에 참여하는 화자들이 사용하는 억양 패턴이나 리듬 그룹 내 액센트가 낭독체 담화와는 분명 다른 음향적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낭독체 담화에서 제시된 패턴들과는 다른 특징들이 대화 형식의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인터뷰라는 상황에 한정하여 프랑스어 운율의 특징적인 양상들을 억양, 액센트 및 휴지 현상을 중심으로 관찰,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억양 패턴의 경우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의 개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한 억양 패턴이 실현되는 동기를 함께 관찰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끝음절 돌출 현상, 좀더 정확히 말하면 끝음절의 상대적 장음화 현상에 한정하여 기술되던 프랑스어 액센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화 상황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첫 음절 돌출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한다. 휴지 현상은 구어 담화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독자적 운율 변수로 설정하여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이 현상이 다른 운율 변수와 어떤 상관 관계를 맺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 상황에서 실현되는 운율 현상 중에서 우선 반복적,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한편 현대 프랑스어 운율의 특징들이 낭독체 담화에서와는 다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하고 프랑스어 운율 전체에 대한 해석은 보류함을 밝혀둔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분석 대상인 인터뷰는 프랑스 현지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30분)을 녹음하여 그 일부를 발췌하였다. 방송 진행자와 인터뷰 초청 인사가 이 프로그램의 두 남성 화자로 방송 진행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과 코멘트를 주로 할 뿐 대담 대부분의 시간을 초청인사의 발화가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담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3.2 분석 방법 및 절차

우선 녹음된 인터뷰를 철자법에 맞게 전사하여 담화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사된 구어 담화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돌출 현상들 즉 같은 단어 반복("de de", "le le"), 잘못 시작된 언술 재구성("j'ai donné quelque j'ai fait un graphique"), 머뭇거림("je crois queuh:")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이 또한 구어 담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보고 이 현상들과 운율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함께 관찰하였다. 실험 음성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PCquirer (version 4.5)를 이용하였다. 분석한 운율 변수는 높낮이 변수(단위 Hz), 길이 변수(단위 ms)로 억양 곡선의 실현 양상의 변이성, 액센트의 음향적 실제, 휴지 현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 4. 분석 결과

### 4.1 억양 패턴의 특징

기존 낭독체 담화에서 연구자가 작성한 문장들을 화자가 읽는 방식으로 실현된 억양 패턴들과 비교할 때와는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낭독체 담화에서는 화자가 제시된 문장들을 읽을 때 화자의 전언 의지나 표현성은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문장의 구성요소들 간의 층위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억양 패턴들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P. Delattre). 반면 인터뷰 초청 인사의 발화에서 실현된 억양 패턴들은 연속된 억양 패턴들의 형태를 볼 때 우선 화자의 운율 전략적 차원에서 그 배열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담 상황에서 화자가 상대 화자에 대해 자신의 담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억양 패턴들 간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상승 억양은 상승하는 형태의 특징에 의해 단순 상승 형태와 강세 상승 형태로 구분하는데 강세 상승은 끝음절 강세와 첫 음절 강세에 의한 두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하강 억양의 경우는 첫 음절이 실현되는 양상에 의해 단순 하강 형태와 강세 하강 형태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빗선(/)은 억양 곡선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이탤릭체의 수치는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을 특징짓는 끝음절 또는 첫 음절의 높이를 나타낸다. 참고로 그림에서 표시한 "●"는 강세 억양의 도입부가 상승한 경우를 나타내고 "■"는 각 억양의 끝음절의 위치를 나타냄을 일러둔다.

대표적인 억양 패턴들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 단순 상승 억양의 연속 현상

"de quel droit / toi / tu vas / employer / ce mot /" (그림 1)

130 Hz-109 Hz-264 Hz / 237 Hz / 114 Hz-201 Hz / 124 Hz-110 Hz-191 Hz / 96 Hz-223 Hz /

화자는 이 언술에서 단순 상승 억양 곡선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면서 음향적 반복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곡선들은 끝음절을 제외한 이전 음절의 높이가 화자가 사용하는 가장 낮은 음역에서 머무르는 반면 끝음절에서의 높이 변화가 극대화된 형태로 낭독체 담화에서 흔히 사

용되는 상승 억양보다 과장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된 상승 억양간의 층위는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끝음절의 높이 조절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억양에서는 이 언술이 의문형임을 알려주기 위해 끝음절이 중간 음역의 높이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자는 언술의 구성 성분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억양 곡선 배열보다 이런 전략적 차원의 배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전략은 유사한 상승 곡선을 반복하는 동시에 끝음절과 그 이전 음절간의 긴장을 최대화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 상승 억양과 강세 상승 억양의 교체 현상

“en tant / qu’*discipline* / des raisons / objectives /” (그림 2)

122 Hz-180 Hz/128 Hz-169 Hz-239 Hz/114 Hz-122 Hz-167 Hz/180 Hz-155 Hz-239 Hz /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네 개의 상승 억양 중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억양은 상대적으로 단순 상승 억양으로 실현된 첫 번째, 두 번째 억양에 비해서 끝음절의 Fo가 도달하는 지점이 해당 음절 내 모음의 초기시기에 이루어지면서 대비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강세 상승 억양의 경우, 이전 예(그림 1)가 끝음절 내 모음 길이와 병행한 상승 형태를 보인 반면 끝음절의 돌출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 이전 음절을 미리 상승시키는 전략에 의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 상승 억양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형태로 상대 화자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은 해당 두 강세 상승 억양의 끝음절의 높이가 같아지는 동시에 끝음절 구조의 동일성에 의해서 반복 효과도 생성하고 있다. 즉 [plin]과 [tiv], 두 강세 억양의 끝음절은 CVC 구조이면서 마지막 자음의 유성성이 두 강세 억양의 반복 효과를 동반하고 있다.

-반복 억양 패턴에 의한 연속 언술 간의 연계 현상

“et ce discours là / va paraître /”(그림 3)

139 Hz-164 Hz-225 Hz-212 Hz-113 Hz / 143 Hz-169 Hz-121 Hz

“et y a décalage / par rapport à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그림 4)

186 Hz-177 Hz-245 Hz-204 Hz-157 Hz / 117 Hz-112 Hz-95 Hz-92 Hz-77 Hz/

연속된 이 두 언술에서 화자는 상승-하강이 결합한 억양 패턴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패턴은 첫 음절 강세 액센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두 서술문의 전체적인 억양 양상을 유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각 언술의 첫 강세 음절의 자음이 동일하여 ([d]: “discours”, “décalage”) 분절음 효과도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런 동일 패턴 반복에 의해 언술 간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면서도 화자는 후속 언술의 마지막 패턴을 최저 음역에서 실현하여 강세 억양 패턴의 연속 이후 긴장완화의 극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전 예들과 함께 비추어 보건대 대화 담화에서 사용되는 억양 패턴들의 배열을 보

면 한 언술 안에서는 유사한 패턴들이 연속되는 중에 끝음절 높이 변화를 통해 대비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비 강세/강세 패턴을 교차시켜 억양간의 리듬을 생성하고 있다. 두 언술이 연속되는 경우 유사한 억양 패턴을 유사한 지점-언술 도입부-에서 반복시키는 동시에 후속 언술을 선행 언술과 차별화하기 위한 장치로 결말부 억양을 최저음역에 배치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방식의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의 대비 효과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표현강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결말형 억양간 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낭독체 담화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형태라 할 수 있다.

#### -억양 패턴 대비에 의한 연속 언술 간의 차별화 현상

*"il y a / un discours philosophique effectivement universaliste /"*(그림 5)

87 Hz → 236 Hz 207 Hz → 130 Hz → 108 Hz → 94 Hz → 92 Hz → 77 Hz

*"mais / y a une pratique / je dirais honteuse /"*(그림 6)

160 Hz / 110 Hz → 181 Hz → 245 Hz / 136 Hz → 236 Hz → 90 Hz /

이전 현상과는 반대로 유사 억양패턴들이 연속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언술 간의 대비를 나타내주는 전략으로 억양 형태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키고 있다. 첫 언술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는 언술 첫 부분의 억양을 상승 형태로 실현한 뒤 언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을 급격한 하강 곡선으로 잇고 있다. 두 번째 언술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개의 강세 상승 억양을 실현하여 일종의 반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대화자에게 연속 언술 간의 의미 대조를 억양패턴들의 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강세 억양 패턴은 현대 프랑스어 운율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인 첫 음절 강세 액센트의 개입에 의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 -“oui”의 변이형들 (그림 7)

대화 상황에서는 한 화자가 발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화자의 말을 이어 받는 긍정의 “oui”는 그 풍부한 억양 형태만큼이나 의미의 다양함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ui”가 실현된 상승 억양, 하강 억양, 상승-하강 억양은 이전 언술들과는 분명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동시에 상대 화자가 방금 말을 끝낸 내용에 대한 운율적 태도를 시사해주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대 화자의 전언에 대한 전적인 찬성이거나, 부분적인 찬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 화자의 마지막 억양 곡선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형식적인 연결 기능만을 할 수도 있다.

억양 형태를 보아 쉽게 알 수 있듯이 상승 억양의 “oui”는 단순 긍정 또는 상대화자의 말을 연결하여 받는 연결기능을 주로 맡고 있는 반면 오히려 하강 억양의 “oui”는 상대 화자의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드러낸다. 상승-하강 억양의 “oui”는 화자의 하강 억양보다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대화체 담화에서의 “oui”가 실현되는 억양 중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강한 긍정을 나타내 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 4.2 액센트의 특징

프랑스어의 리듬을 특징짓는 현상으로 전통적으로 리듬 그룹(들)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끝음절 액센트 달리 말하면 리듬 액센트 *accent rythmique*가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는 종래 많은 이론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프랑스어의 액센트는 무엇보다도 리듬 그룹내 마지막 음절의 상대적 장음화에 의해 인지됨을 본 연구에 선행한 액센트 청취 실험에서 역시 확인한 바이다.

비 액센트 음절의 길이와 액센트 음절의 길이는 음절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비 액센트 음절	$CV < 200 \text{ ms}$	$200 \text{ ms} < CV < 250 \text{ ms}$
액센트 음절	$200 \text{ ms} < CVC < 300 \text{ ms}$	$250 \text{ ms} < CVC < 500 \text{ ms}$

비 액센트 음절과 액센트 음절 길이의 상대적 관계는 음절의 청각적 핵인 모음의 길이에 근거하여 계산했을 때 1:3의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나 가속화현상이 개입할 경우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4.2.1 끝음절 액센트

본 연구에서도 끝음절의 장음화 현상은 규칙적으로 관찰되었으나 분명 낭독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장 구성 요소들의 층위에 따른 길이의 비례관계가 낭독체 담화의 액센트를 특징짓는다고 하면 대화 담화에서는 화자의 의지에 의한 다른 규칙성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연속된 리듬 그룹의 끝음절 길이의 유사화
- 유성 휴지 실현 이후 후속 리듬 그룹의 가속화에 의한 그 끝음절 길이의 감소
- 동어 반복 이후 후속 리듬 그룹의 가속화에 의한 그 끝음절 길이의 감소
- 연속된 리듬 그룹의 끝음절 길이의 점진적 증가

### 4.2.2 첫 음절 액센트

첫 음절 액센트의 경우 낭독체 담화에서는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논의되지 않았으나 대화 상황에서의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이 강세 액센트(*accent d'insistance*)<sup>1)</sup>의 존재를 액센트 청취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규칙적으로 실현되는 리듬 액센트와 대조되는 이 액센트는 두 명 이상의 화자가 직접 대면할 때, 그렇지 않다면 잠재적 다수의 청(취)자를 전제하는 대중 매체 담화에서 쉽게 인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프랑스어의 구어 담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 첫 음절 액센트가 과연 화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특정 어휘를 돌출시키기 위한 현상으로 보고 체계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언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음성적 맥락에 기초하여 이 액센트가 실현되는 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기술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 보았다.

1) 강세 액센트는 기존의 음성학자들이 관점에 따라 *accent d'insistance* (A. Séguinot), *accent didactique* (V. Lucci)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il *ne* faut pas / *naturaliser* / plus de *cinquante* pour cent / de *Méditerranéens*”(그림 8)  
 125 Hz-198 Hz → 116 Hz / 197 Hz-147 Hz-201 Hz / 123 Hz-239 Hz → 153 Hz → 195 Hz / 133  
 Hz-153 Hz → 89 Hz /

이 예에서 나타나듯이 화자는 동일 자음을 포함한 음절들([nə]-198 Hz, [na]-197 Hz)을 같은 Fo에서 첫 음절 강세엑센트를 실현하면서 반복되는 리듬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후속 강세 엑센트는 한 음역 높여서 ([sɛ]-239 Hz) 그리고 한 음역 낮추어서 ([me]-153 Hz) 차별화하고 있다. 화자는 대화 담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엑센트를 반복 사용하되 언술의 전달효과를 염두에 둔 대비 전략을 첫 음절 강세엑센트의 음역 변화에 의해 구체화하고 있다.

역양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고찰했듯이 첫 음절 엑센트가 언술의 일정 부분에서 실현되었을 경우 그 일차적 반향은 또 다른 첫 음절 엑센트의 실현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Fo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엑센트에 의해 언술의 응집력cohésion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언술 내 구성 성분간의 관계 그리고 언술간의 관계를 운율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 4.3 휴지 현상

프랑스어 운율에서 역양이나 엑센트에 비하면 휴지 현상은 구어를 이루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낭독체 담화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던 무성휴지-호흡 휴지 및 문장 구성 성분 층위 표지기능의 비호흡 휴지-의 역할을 해석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유성휴지 (“euh:”)까지 다룸으로써 구어 담화의 휴지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실 휴지 현상은 준 언어 현상이면서도 언술 구성에 참여하는 변수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두 화자간의 대화 상황에서는 무성 휴지와 유성휴지가 호흡 한계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인코딩의 지연 때문에 다양한 양상과 분포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담자의 담화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휴지 현상들을 유형 별로 분류하였다.

#### 4.3.1 무성 휴지

호흡 무성 휴지는 연속되는 두 언술 또는 두 절 사이에 놓일 수도 있으나 후속 언술 또는 후속 절의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다. 호흡 휴지의 길이는 190 ms에서 890 ms까지 다양하게 실현되었고 길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0 ms 이하	1.3%
201 ms-300 ms	17.7%
301 ms-400 ms	28.9%
401 ms-500 ms	25%
501 ms-600 ms	13.8%
601 ms-700 ms	4.3%
800 ms 이상	1.3%

301 ms에서 500 ms까지의 호흡 휴지가 53.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호흡 무성휴지는 언술 내 특정 어휘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주로 형용사와 부사 앞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길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1 ms-300 ms	44.8%
301 ms-400 ms	26%
401 ms-500 ms	13.5%
501 ms-600 ms	5.2%
601 ms-700 ms	6.3%
701 ms-800 ms	4.2%

호흡휴지와 비교할 때 특정 어휘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서 비 호흡 무성휴지는 201 ms-400 ms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2 유성 휴지

머뭇거림("euh:")이나 단어 반복 더듬이형("de de", "je je") 또는 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등 1 음절로 이루어진 문법소의 모음 연장형("leuh:", "deuh:", "queuh:")으로 나타나는 유성 휴지는 담화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방해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 화자에게 담화의 지속을 알리는 도구이기도 하다. 유성 휴지의 Fo는 결론형 억양 즉 하강 억양의 최저 높이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에서 유성휴지의 길이는 최소 270 ms에서 최대 1,070 ms까지 관찰되었다.

#### 4.3.3 무성 휴지와 억양 패턴의 관계

무성 휴지가 화자의 운율 전략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후속 억양과의 관계를 통해 무성 휴지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어휘를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로 무성 휴지와 도입부에 강세 억양이 결합된 경우를 보자.

무성휴지+ "*simplement / du fait / qu'on les appelle / immigrés* /"(그림 9)  
 176 Hz → 161 Hz → 218 Hz / 138 Hz → 221 Hz / 117 Hz-159 Hz-109 Hz-242 Hz / 99 Hz/

무성 휴지 다음에 실현된 강세 억양의 첫 음절은 도입부가 강세되지 않은 단순 상승 억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Fo에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화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강세 액센트가 개입된 경우, 이전 예(그림 8 참고)에서 관찰했듯이 유성 휴지가 삽입되지 않는 한 후속 억양 패턴 내 음절간의 음역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상대 화자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억양 형태에 의한 점진적 긴장 현상은 급격한 하강 곡선에 의해 이완되면서 대비 효과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4 유성 휴지와 억양 패턴의 관계

유성 휴지의 경우 비 액센트 단어 (관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특



징적인 현상으로 도입부 강세 억양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euhi*: y a un problème / qui me fait peur /”(그림 10)

115 Hz                      187 Hz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성 휴지에 의해 발화가 지연되고 화자는 시간적 손실을 만회하면서 상대 화자에게 자신의 담화가 지속됨을 환기시키는 장치로 도입부가 상승한 억양을 배치하게 된다고 본다.

또 다른 유성 휴지와 억양 형태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말속도가 증가하여 상승 억양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hi*: mais mais: / effectivement /”(그림 11)

101 Hz                      175 Hz 187 Hz

유성 휴지 후속 억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tiv])이 끝음절([mä])의 Fo에 가까운 높이에서 이미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억양 형태의 변화는 유성 휴지에 의한 잉여 시간과 억양과의 균형을 이루려는 운율적 재구성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현대 프랑스어의 휴지 현상은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억양 형태와 관련하여 도입부 강세 억양이나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상승에 의한 상승부 강세 억양을 유도하는 기능을 보이고 있다. 억양 패턴의 변이성과 관련한 음성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휴지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이 현상을 단순히 발화 정지 또는 발화 이전과 이후의 잉여적 사실이 아닌 구어 담화의 리듬을 형성하는 시간성 변수로, 언술 구성과 관련한 운율 전략적 도구로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5. 결 론

프랑스어가 실현되는 다양한 상황 중에서 인터뷰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운율 변수들의 특징적인 양상들을 기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화자가 전언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로 이용하는 억양 패턴간의 조합 방식을 몇 개의 대표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억양 형태는 낭독체에서 기술하던 단순 상승 억양(시간 축과 병행한 끝음절 상승 패턴), 단순 하강 억양과는 매우 다른 역동적인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났다. 첫 음절 강세 액센트 영향에 의한 도입부 강세 상승 억양과 끝음절 정점 시기를 앞당겨 실현한 상승 억양의 빈도가 높고 이런 형태의 억양들의 기능을 담화 구성과 관련하여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재고할 수 있었다. 둘째, 리듬 그룹을 구분하는 기능의 끝음절 액센트와 함께 현대 프랑스어를 특징짓는 첫음절 강세 액센트의 실현 양상과 역할을 확인하였다. 특히 첫음절 액센트가 한 언술 내 또는 언술 간에 연속 실현되는 경우 화자는 그 높이에 변화를 주는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셋째, 휴지 현상들의 성격에 따라 그 길이와 분포 그리고 후속 억

양 패턴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 각 억양 패턴들과 시간변수를 연관시킨 내적 변화 양상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 부분의 연구가 보완되어 프랑스어 운율을 다변수적 현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대화 상황-친근한 대화, 정치인의 대담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두 명 이상의 화자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운율 변수별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정의 "non"과 그에 준하는 표현들의 억양의 형태 또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화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연스런 프랑스어 운율 형태에 좀더 가까운 기본 학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사용되는 학습 사전의 경우 음성 정보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 종이에 인쇄된 사전에서는 발음 기호를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멀티미디어가 연동될 수 있는 전자 사전은 실제 음성으로 된 음성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지만<sup>2)</sup> 음성 정보의 제공은 다양한 층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lexical entry)에 국한되었다. 굴절 언어(inflexional language)인 프랑스어가 기본형(base form) 형태인 표제어 상태로 담화에 사용되는 예는 극히 제한되므로, 표제어 음성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표제어에 연결된 어휘 기술 정보 중 예문 정보가 많은 양과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에 대한 음성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녹음 비용과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식이 TTS(Text-To-Speech) 시스템의 연동인데<sup>3)</sup> 아직까지 프랑스어의 경우 지금까지 개발된 TTS 시스템은 아직까지 대화체 억양을 지원해 줄만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부분적이거나 이러한 프랑스어 TTS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Butterworth, B. 1980. "Evidence from pauses in speech", *Language Production: volume 1-Speech and Talk*, Academic Press, 155-176.
- [2] Caelen-Haumont, G. 1989. "Une représentation syntaxique adaptée à la prosodie", *Journal Acoustique*, 2, 137-146.
- [3] Charaudeau, P. 1984. "Description d'un genre: interview", *Aspects du discours radiophonique*, dir. P.Charaudeau, Didier Erudition, 111-115.
- [4] Culioli, A. 1983. "Pourquoi le français est-il si peu étudié?", *Recherches sur le français parlé*, 5, 291-300.

2) 국내에서 개발된 불-한 전자 사전으로는 본 고의 필자가 개발한 FranCo가 있다. 2001년 4월까지는 유일한 불-한 전자 사전이며 멀티미디어 자료가 연동되어 있다. 이 사전은 2만 개 이상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용으로 인터넷에 서비스되고 있다. (<http://parole.fr.ac.kr/franco>)

3) FranCo의 경우, 표제어 및 굴절 형태의 음성 정보는 벨기에 Mons Poly Technique의 TCTS 연구실에서 개발한 Euler를 연동하여 생성하도록 하였다. Euler는 문장 단위를 읽을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2000년 개발한 Euler 2.0에서도 아직 낭독체에서도 자연스런 억양을 제공하지 못한다. (<http://tcts.fpms.ac.be/synthesis/euler>)

- [5] Danon-Boileau, L., Morel, M.-A. 1995. "L'oral: invariance et variations", *Intellectica*, 20(1), 55-73.
- [6] Davis, R., Léon, P. 1989. "Pausologie et production linguistique", *Information/Communication*, 31-43.
- [7] Delattre, P. 1966. "Les dix intonations de base du français", *French Review*, 40(1), 1-14.
- [8] Duez, D. 1991, *La pause dans la parole de l'homme politique*, Editions du CNRS.
- [9] Grosjean, F., Collins, M. 1979. "Breathing, pausing and reading", *Phonetica*, 36, 98-114.
- [10] Grosjean, F., Deschamps, A. 1972. "Analyse des variables temporelles du français spontané", *Phonetica*, 26, 129-156.
- [11] Grosjean, F., Deschamps, A. 1973. "Analyse des variables temporelles du français spontané: comparaison du français oral dans la description avec l'anglais (description) et avec le français (interview)", *Phonetica*, 28, 191-226.
- [12] Léon, P. 1993. *Précis de phonostylistique: parole et expressivité*, Nathan Université.
- [13] Martin, Ph. 1991. "A propos du statut théorique de la structure prosodique de la phrase", *Verbum: Texte et parole-Hommage au Professeur Fernand Carton*, Presses de l'Université de Nancy, 14(2-3-4), 307-310.
- [14] Martins-Baltar, M. 1977. *De l'énoncé à l'énonciation: une approche des fonctions intonatives*, Didier.
- [15] Morel, M.-A. 1995. "Valeur énonciative des variations de hauteur mélodiques en français", *French Language Studies*,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Séguinot, A. 1976. "L'accent d'insistance", *Studia Phonetica* 12, 1-58
- [17] Vaissière, J. 1991. "Rhythm, accentuation and final lengthening in French", J. Sundberg & al. (ed.), *Music, language, speech and brains*, Wenner-Gren international symposium series, 59, 108-120.
- [18] Vaissière, J. 1995. "Phonetic explanations for cross-linguistic prosodic similarities", *Phonetica*, 52, 123-130.
- [19] Vaissière, J. 1997. "Langues, prosodie et syntaxe", *Traitement Automatique des Langues*, 38(1), 53-81.
- [20] Wioland, F. 1986. "Aspects rythmiques du français spontané, relations entre perception et production", *Bull. Audiophonologie*, Univ. Franche-Comté, 2(5-6), 549-561.
- [21] Wioland, F. 1991. *Prononcer les mots du français*, Hachette, Paris.

접수일자: 2001. 4. 1.

게재결정: 2001. 4. 27.

## ▲ 고영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 대학교 불어불문학과  
Tel: +82-2-715-5204 (H)  
E-mail: koylim@hanimail.com

## ▲ 윤애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Tel: +82-51-510-2049 (O)  
E-mail: asyoon@pusan.ac.kr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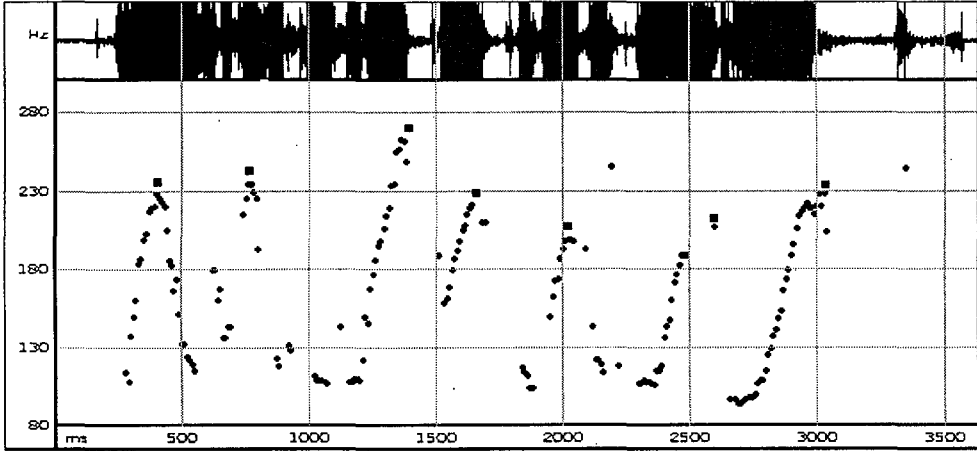


그림 1. *et moi je me suis dit de quel droit toi tu va employer ce m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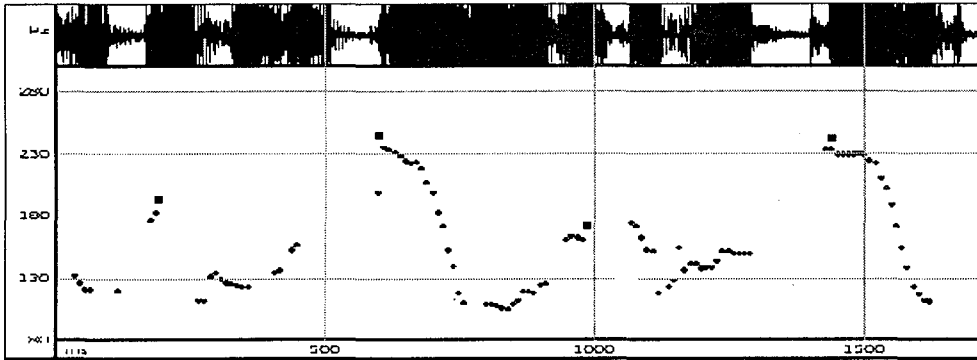


그림 2. *en tant qu\'discipline des raisons obj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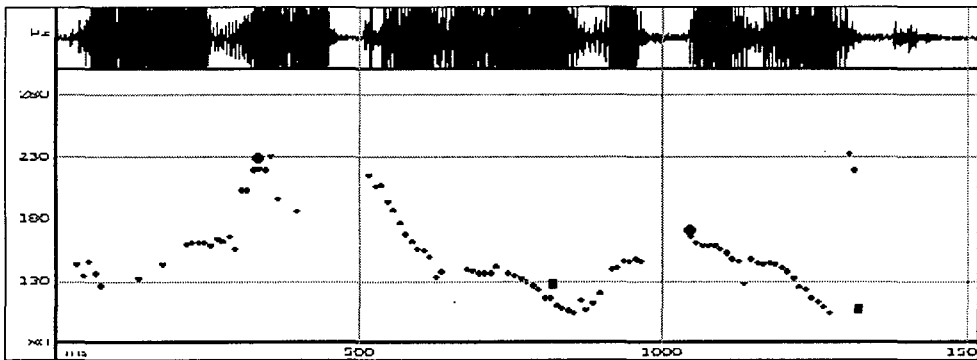


그림 3. *et ce discours là va paraî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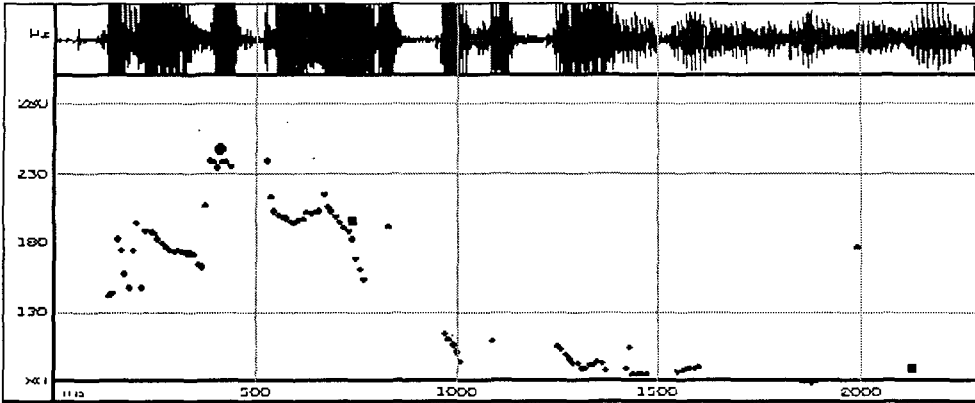


그림 4. et y a un *décalage* par rapport à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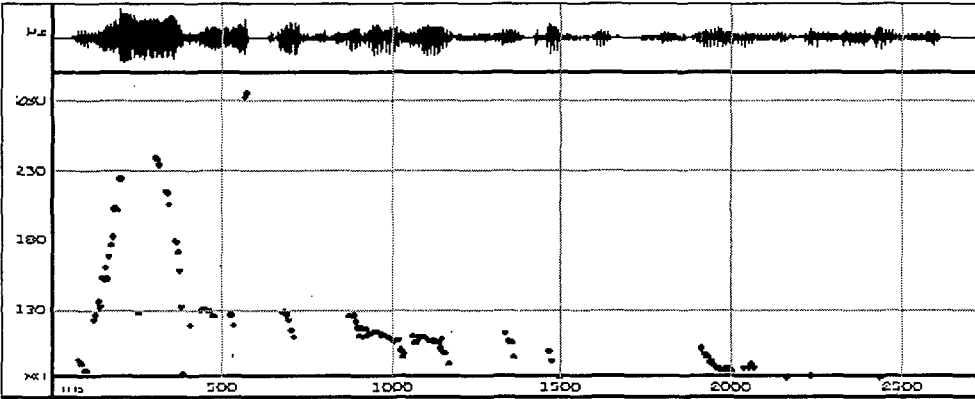


그림 5. *il y a* un discours philosophique effectivement universali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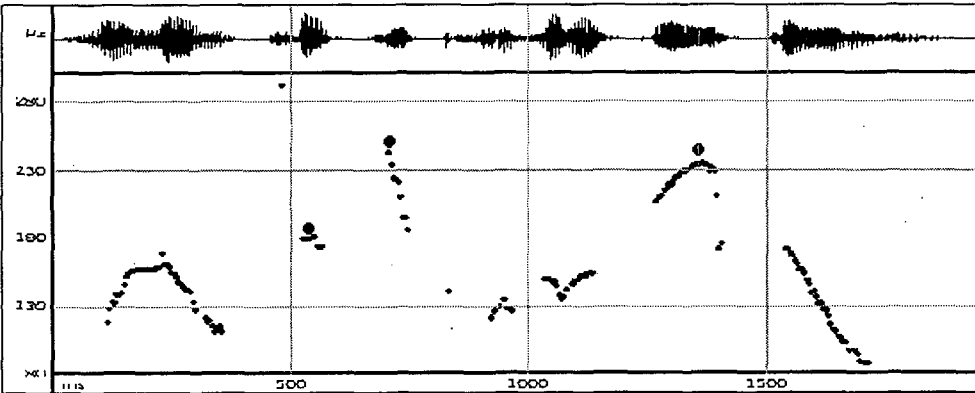


그림 6. mais y a une *pratique* je dirais *honte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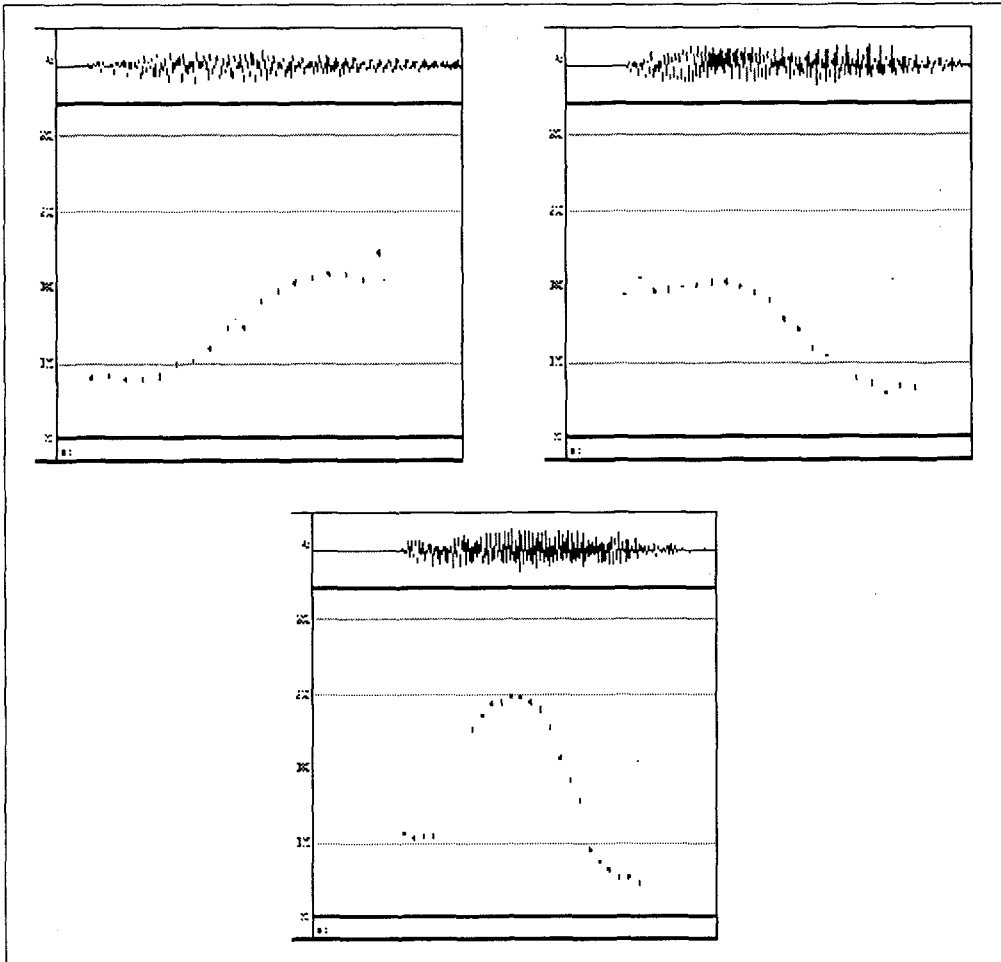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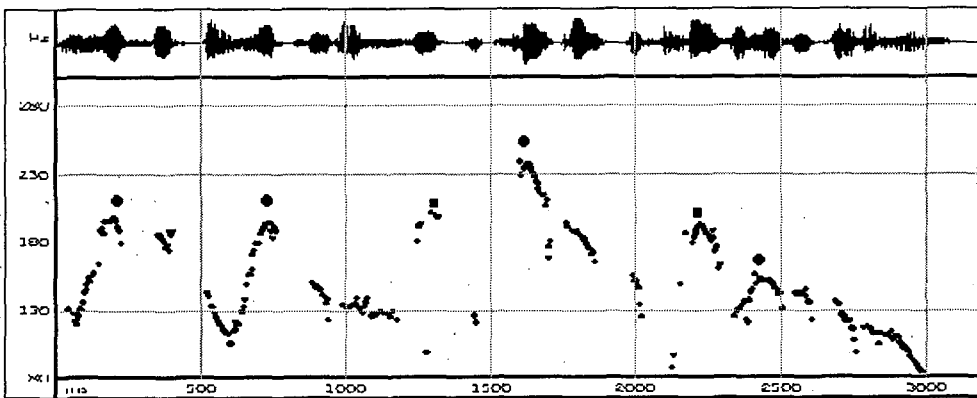


그림 8. *il ne faut pas naturaliser plus de cinquante pour cent de Méditerrané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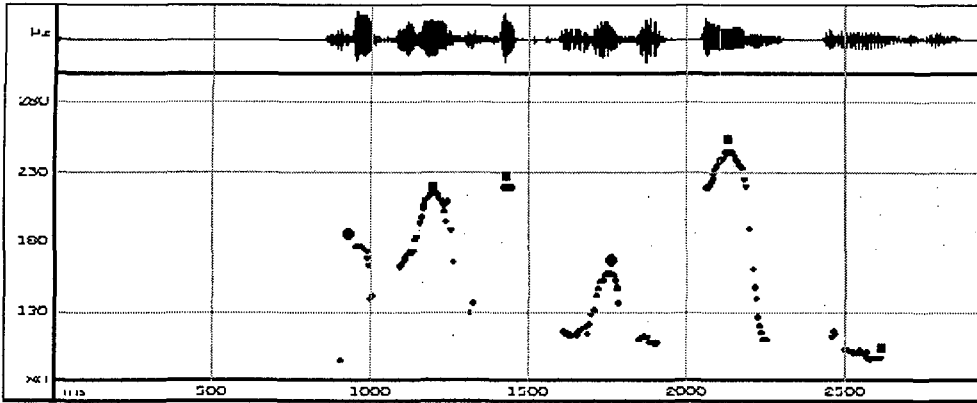


그림 9. [pause] simplement du fait qu'on les appelle immigr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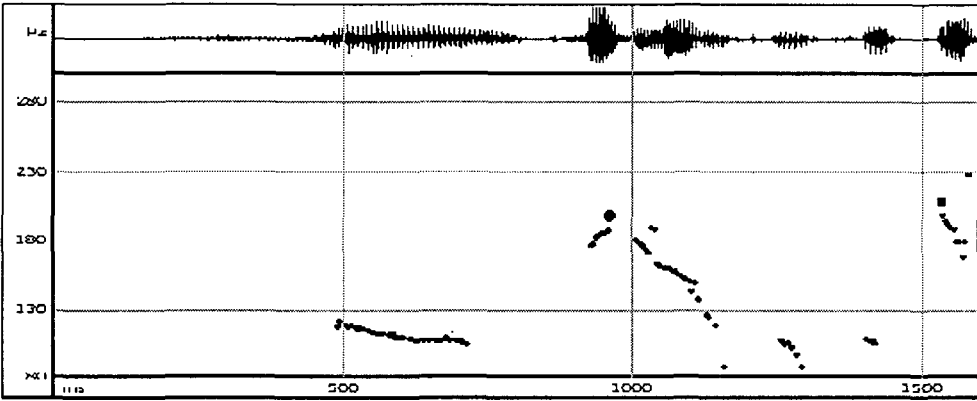


그림 10. euh:: y a un problème qui me fait p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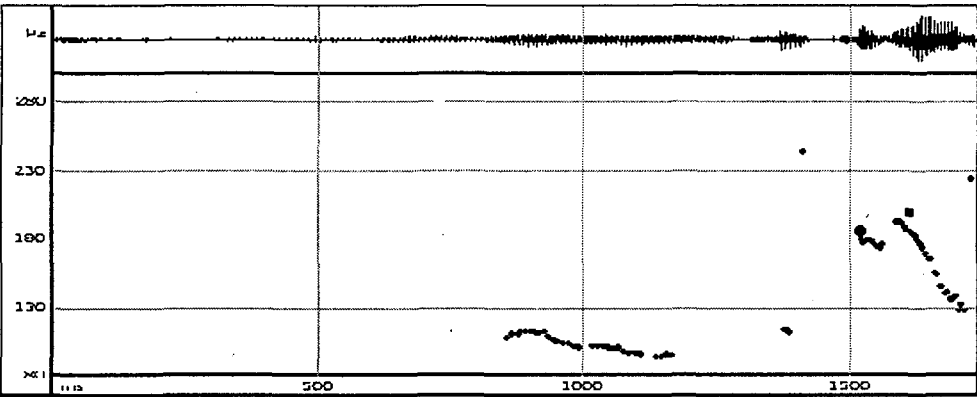


그림 11. euh: mais mais: effectivement